



“명품 논산 딸기 열대과일의 천국 동남아에서도 통했다”

태국 방콕에서 35만 명 ‘성황’ … 2,300만 불의 초대박 수출협약

충남 논산시는 민선 8기의 시작부터 세계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했다. 2023년 2월과 3월 동남아 시장에 3,800만 달러(한화 약 500억) 규모의 수출 협약으로 논산 농산물 해외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 위대한 사막의 시작이었다. 논산 농산물을 접한 동남아의 고객들은 연달아 ‘논산 논산’을 찾았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논산시-방콕시 간의 농식품 박람회 공동 개최 협약으로 논산의 대대적인 세계 무대 데뷔가 성사된 것이다.

지난 14일, 대망의 개막식의 날이 밝았다. 박람회의 첫날 공식 일정으로 백성현 시장은 태국 방콕시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일정을 먼저 수행했다. 먼저 태국 최고 유수의 석학들이 이 모인 국립 탐마삿대학을 방문하여,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국과 한국의 우정, 애틋함을 표현하며, 세계 제일의 논산 딸기를 홍보했다. 그리고 태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꼭 논산을 방문해달라는 초대도 잊지 않았다.

다음 일정으로 백시장은 태국 방콕시와 친선 교류를 맺는 자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찻차 샤티판(Chadchat Sittipunt) 방콕시장, 박용민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 태국 방콕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논산시 의원들이 참석해 양도시 교류의장을 더욱 두텁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개막식에서는 전통 훈례 시연을 통해 양도시의 우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훈주에는 양도시의 시장이 주례 역할은 박용민 대사가 맡아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이후 이어진 한국과 태국, 양국 아이들의 공연은 박람회 현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첫날 개막식 방문객은 3만 5천 명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박람회 첫날의 밤을 성대하게 장식했다.

방콕에서의 둘째 날, 오전 일정부터 커다란 선물 같은 소식을 전해왔다. 바로 세계 각지 7개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과 2,300만 불의 수출협약을 맺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딸기의 대표적인 생산국으로 알려진 미국, 일본도 수출 협약을 맺었다는 점은 논산 딸기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협약식 현장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정책 방향 5가지(△농업생산비용절감 △우수농산물 생산 △농업의 산업화 △농업의 세계화 △농업의 전문화)를 설명했다. 또한 농산물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유통전문관을 채용하여 논산의 우수농산물의 판로를 국내·외에서 확장한 것, 믿음과 신뢰의 농산물공동브랜드 육군병장을 런칭한 사례 등 농업에 대한 애착과 비전을 외치며 세계 40여 명의 바이어들에게 논산 우수 농산물에 대한 매력을 어필했다.

쉴 틈이 없었다. 수출 협약의 큰 수확 후 박람회장의 논산시 관내 기업(C제일제당, 대상 다이브스, 한포, 휴먼테크 등) 홍보 부스에서 휴먼테크 기업이 5만 불(한화 6천 7백여 만원)의 수출 협약을 맺는 깜짝 소식을 전해왔다. 이는 해외시장에서 기업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세계시장 수출 판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둘째 날이 맞았고 싶은 현장의 분위기였다. 논산시 우수 농식품은 남녀노소, 국적을 가리지 않고 발길을 끌고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태국 현지인의 기호에 맞춘 공연프로그램과 태국 인플루언서를 채택한 쿠킹쇼 등은 SNS를 타고 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마지막 날이 밝았다. 좀처럼 찾아들지 않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백시장은 마지막날까지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관광객의 연이은 발걸음을 백시장은 물론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아직 공연장에서는 키버댄스 캠린지가 펼쳐졌다. K-POP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이날 공연에서 각 팀은 자신들의 기량을 뽐내며 진지한 자세로 대회에 임했다. 관람객들은 이들의 공연에 열광하며, 박람회장을 활성으로 채웠다.

폐막식에서 백성현 시장은 “과감한 도전을 통해 이제 세계



인의 딸기로써 충분히 사랑받을 매력을 가졌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 박람회는 3일 동안 방문객 35만 명, 판매된 딸기는 10톤, 2,300만 달러(약 307억 원)의 수출협약 등 엄청난 흥행과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백성현 논산시장은 딸기축제에서 2027년 논산 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전면화하였다. 벌기만 했던, 그 꿈 같은

일이 연이은 파죽지세의 성공으로 손 앞에 잡힐 듯 코앞에 와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시의 위대한 행보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며, “논산이 가진 눈부신 가치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자신이 있다. 우리 논산은 그 만한 저력을 갖고 있기에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지치지 않는 도전을 할 것이다. 기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다음달 21일부터 24일까지 논산시민가족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회 논산딸기축제’를 앞두고 있다. 부제는 ‘논산딸기와 사랑에 빠지다’로 방문객을 논산 딸기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만들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중무장하고 설렘의 그늘을 기다리고 있다.

김성구 기자

●정정●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22일
오후 3시 코
트야드 비아
메리어트 세
종 호텔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시도교육
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정월대보름제



박희조 동구청
장=22일 오
전 9시 대청동
다목적회관에
서 열리는 제
23회 대청호
반정월대보름제에 참석.

자문위원회



서철도 서구청
장=22일 오
후 4시 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열리는 서구
대학생복나
눔봉사단 자문위원회에 참석.

지방통합방위회의



정용래 유성구
청장=22일
오전 10시 20
분 대전컨벤
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지
방통합방위회의에 참석.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



최충규 대덕구
청장=22일
오전 10시 30
분 대전컨벤
션 센터에서
열리는 대전
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정책조정 간담회



김영빈 부구청
장(중구청 장
권한대행)=
22일 오후 5시
대전시청 중
회의실에서
열리는 '시·구 정책조정 간담
회' 참석.

동구, 소상공인 지원 '진심'

동행론' 폭발적 인기…조기 마감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동구 대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진심동행론'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 조기 마감 됐다.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진심동행론' 대출 신청이 개시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240 건이 접수돼 48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신청이 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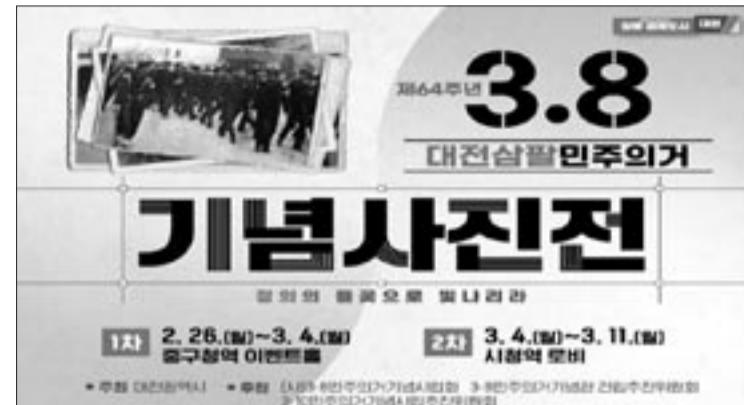
향후, 신용보증재단 서류 심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이달 말경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심사 결과 평균 보증금액은 2,100만 원이었으며, 지원 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 61건, 도·소매업 50건, 개인 서비스·제조업 50건 등이었다.

구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시 소요되는 보증수수료 1.1%와 대출이자 3%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진심동행론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나아가 대전동구 경제 활성화에 진심으로 든든한 베풀드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사업발굴과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정신 기억, 정의의 들꽃으로 빛나리라”

대전시, 26일부터 제64주년 3·8대전민주의거 기념 사진전



대전시는 제64주년 3·8대전
민주의거 기념일을 맞이하여 26
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중
구청역(2,26.~3.4.)과 시청역
(3.4.~3.11.)로비에서 3·8민주의
거 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

3·8민주의거는 자유당 정권
의 횡포와 불의에 맞서 1960년 3
월 8일 대전고등학교와 3월 10일
대전상업고등학교(현 우송고)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대규모 시위이다. 당시 대전의 학
생 시위는 청주 및 수원 지역 학
생 시위에 영향을 주었으며 4·
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사)3·8민주의
거 기념사업회(회장 김용재), 3·
8민주의거기념관 관립추진위원회
(회장 김영광), 3·10민주의거
기념사업 추진위원회(회장 이원

보) 등에서 후원한 자료를 토대로
3·8민주의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자료는 38민주의거 발생
배경과 결과, 학생들의 시위 및 신
문기사 사진, 민주의거 정신을 알
리고 계승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

력 등 총 32점이다.

지하철 역사 내 전시가 끝난
이후에는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3·8대전민
주의거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학
생들의 민주화 교육과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
이다.

한편 대전시는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83억 원(국비
64, 시비 119억)을 투입하여 3·8민
주의거기념관(중구 선화서로
46-1 일원)을 건립 중인데, 3·8
민주의거 정신을 기리고 민주화
운동 역사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
은 "이번 사진전을 비롯해 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시민 여
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라며 "우리시는 3·8민주의거의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함은 물론,
현재 건립 중인 기념관이 중부권
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대전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총력

3월25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환수 결정액의 30% 신고포상금 지급

대전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
급을 극복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6일부터 내달 25
일까지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
리 신고센터(☎1551-1290)를 비
롯해 대전시와 각 구청·동 행정
복지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와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기초생
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
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서비스 전자바

우체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
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주
어진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
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되는 사
회급여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가구원 변동, 소득·재
산변동,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
공적자료를 확보해 매일 확인하

거나하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적자료 제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25개 기관 94종으로
확대해 재산변동, 국민연금, 군복
부, 농지, 출입국자료, 사망, 전·
출입 등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확
인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청년장애인·치매노인·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
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적정하
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정된 급여
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
수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에나서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적자료 제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25개 기관 94종으로
확대해 재산변동, 국민연금, 군복
부, 농지, 출입국자료, 사망, 전·
출입 등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확
인할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
전시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
대로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
극적인 공이신고 참여를 당부드
린다"라면서 "수급 대상자와 시
설에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장기 프
로그램(15주, 25주)의 경우 외부
연계 프로그램과 자율활동이 추
가로 진행된다.

최종 수급자에게는 참여수당
50만~250만 원, 이수 및 취업 인
센티브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온라
인 워크넷 신청 또는 대전 서구 청
년 정보플랫폼 홈페이지(www.seogu-youth.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청춘스
럽(☎042-523-7736, 010-
3945-4931) 또는 키카오플러스
친구 '공백_청춘스럽'으로 하면
된다.

유성구, 환경공무식 상조회 주관 정월대보름 맞이

환경공무직 친목과 화합의 시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21일
유성컨벤션센터에서 환경공무직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월대보
름맞이 청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공무직 상조
회(회장 이태희) 주관으로 육울
이, 투호 던지기 등 민속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평소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은
환경공무직 직원들에게 감사드
린다"며 "이번 청사대회로 직원
들 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의
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평고을 안녕 기원느티나무 목신제

오는 23일,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앞



15일에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
무 숲터에서 마을의 안녕과 주민
의 평안을 기원하며 주민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펼치는 전통 마을
행사로 23일 오전 10시부터 관내
주요인사 및 주민들 약 200여 명
이 참석하여 약 1시간 동안 태평
동 느티나무 숲터에서 제례를 지
내고 떡국, 수육 등 음식을 주민
들과 함께 나누는 주민화합행사
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주 보존회장은 "300년 넘
게 우리 태평동과 함께한 느티나
무 보호수의 기호로 올해도 무탈
하고 주민이 편안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배은주 등장은 "힐끗 푸른 용
의 기운을 받은 갑진년 새해에도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길 기원하며,
많은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화합
행사로 보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동구, 9~24세 여성 청소년 대상…연 최대 15만 원까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9~24세 여성 청
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생
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
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주
소지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
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ro.go.kr) 또는 휴대전화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보훈청과 국가유공자

예우·복지증진 업무협약 체결

롯데백화점 대전점이 국가에
현신한 유공자 우대를 위한 '국
가유공자 우선 주치구역'을 설치
및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대전점 정승우 점
장(원장)이 국가보훈부 대전지방
보훈청 강민희 청장(오른쪽)이
21일 롯데백화점 대전점에서 국
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복지증진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
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약으로 롯데백화점 대전점
은 국가를 위해 현신하고 공헌한
분들을 위한 예우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치구역을 올해 민간시
설에서도 자율적으로 설치를 확
대하는 가운데, 민간기업(백화점)
중 최초로 4면을 설치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승우 롯데백화점 대전점
은 "국기를 위해 현신하신 분들
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며 "앞으로도 대전점은 다양
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
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강민희 대전보훈청장은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해주신 롯데백화점 대전점 관
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간협약을 통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치구역 확대 설치와 복지 지원
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덕구,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개최 '다채'

오는 23일 지역 부수동·목상동·비래동 등 7개 동에서 범영 기원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오는 23~24일
간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행
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들이 기획돼 있다.
대덕문화원은 정월대보름 행사 '값진 대
보름'을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4
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풀을 공연 ▲윷놀
이 대회 ▲나눔장터 ▲전통놀이 등 아이들
과 어른들 모두 전통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
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비래동 느티나무 당산
제(비래동 느티나무)
▲법동 범천골 장승제
(법동 석장승) 등 7개
동에서 가정과 지역의
번영, 풍요로운 농사를

기원한다.
구는 정월대보름 행
사의 전승 가치를 보존
하고 전통이 끊이지 않
도록 유지하고자 지난

신탄진동에서는 22개 자생 단체 및 동
민들이 힘을 모아 현도교 아래 금강강 둔치
에서 '제25회 신탄진 대보름 쥐불놀이 축
제'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돼
오후 7시 개회식, 오후 8시 30분 달집태우기
등이 예정돼 있다.

신탄진 대보름 쥐불놀이 축제에서는 쥐
불놀이와 달집태우기 외에도 짜기치기, 제
기차기, 연날리기, 소원지 쓰기 등 각종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으며, 길놀이 공연 및 다양
한 초대 가수들의 무대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이번 신탄진 쥐불놀이 축제에
서 인천사고를 예방하고자 쥐불들이 도구
를 LED 등으로 변경했다. 정월대보름을 기간
중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쥐불놀이를 즐
길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하려는 지역 주민
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보면 즐겁고, 참여
하면 더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갑진년을
맞아 인생을 기원하고 우리의 전통 행사가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의 참여
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

상생 협력 협약식



김태 흄 충남
도지사= 22일
오후 2시 국토
교통부에 서
열리는 CTX-
C노선 연장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

양성 및 회계교육



최재구 예산군
수= 22일 오전
10시 노인종
합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지도자 양성
및 회계교육에 참석.

이사회



이용록 흥성군
수= 22일 오
전 10시 30분
군청 대강당
에서 열리는
제47차 흥성
군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 참석.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강력 촉구”

김태희 지사, 제5회 지방정부회의서 시장·군수와 결의문 채택

김태희 충남도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국립 치의학 연구원 천안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치의학계의 속원인 국립 치의학 연구원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치의학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중요 국가기관이다.

도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국립 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을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 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 ▲정부는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진행할 것을 3가지다.

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결의문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220만 도민의 의지를 모아 대

장·군수는 결의문을 통해 “충남 천안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치의학 연구개발 기반과 시동팔달의 초광역 교통 여건을 갖췄고 자체 타당성 조사는 물론 ‘천안아산 연구개발(R&D)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한 완벽히 준비된 최적지”라며 “다른 시도와의 유치 경쟁 등 불필요한 논란 없이 국립 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을 확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 담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정부는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지역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 ▲정부는 지방 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조속히 확정할 것 ▲정부는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신속 수립하고 진행할 것을 3가지다.

도와 도내 15개 시군은 결의문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220만 도민의 의지를 모아 대

통령 지역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지방정부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통한 도민 인명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흥성군 서부면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해 총 1834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피해 면적이 2086ha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피해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는 올해 주요 원인별 산불에 방책을 강화하고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사전 대응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장비와 인력 지원 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 개혁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비리 메가시티 조성 ▲저출산 대책 ▲지역 균형발전 등 5가지 도정 주요 정책과 ▲2025년 국비 11조 확보 ▲공공기관 이전 및 이민 청 유치 ▲국립의대 신설 등 현안 과제를 꺼내 들며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 선정



특구 지정마을로,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및 미을 백년계획을 준비하고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생물다양성 체험 등을 제공하며 문당마을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월 중 현장답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4월 말까지 유엔관광청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2024년 ‘제4회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된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문당환경농업마을이 유엔관광청이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되면 홍성군의 관광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당환경농업마을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 100’에 이름을 옮기며 흥성군 내륙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문당환경농업마을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한 유기농

내포=김정환기자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 축제 열린다

내달 22~24일… 전의 묘목 우수성 홍보

제17회 세종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전의면 만세길 16-8)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에서는 묘목, 화훼, 야생화 등을 전시·판매하는 세종묘목신입가든마켓이 열리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경수 해설 사의 해설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사전 신청을 통해 1평정

원 만들기, 디쉬 정원 만들기, 테라워민들기도 진행할 예정으로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세종전의묘목축제는 지난 20일 묘목플랫폼에서 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들과 만나 제17회 세종 전의 묘목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세종시, 대·중견기업과 함께 창업기업 협력 지원

창업기업-대·중견기업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 내달 18일까지 모집



18일까지 모집한다.

창업기업-대·중견기업 개방형 혁신 지원사업 브릿지온 오픈 이노베이션은 혁신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기업 7개사를 선정, 대·중견기업과의 협업사업을 위한 기술 컨설팅, 기술검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은 문제 해결형과 자율제안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 해결형은 대·중견기업이 제시한 기술 수요를 창업기업의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협업하여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기술 과제는 ▲생성형 AI 기반 원천/적용기술 및 서비스(SKT) ▲인공지능(AI), 디지털, 클라우드, 미래기술(네이버 클라우드) ▲소재, 반도체, 배터리, 공정최적화(조

광RAINT) ▲건설현장 외부 시전제작품 설치(OSC) 공법 등 신기술, 산업융합 분야(호반건설)다.

자율제안형은 창업기업이 대·중견기업에 보유 기술 기반의 아이디어를 제시·협업하여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자율제안형은 대·중견기업과 잡재적 신규 협업 가능한 모든 분야로 기술 발전과 판로 확보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유형에 상관없이 혁신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기업 7개 사에 선정되며, 3,000만 원 내외의 기술 컨설팅, 기술검증 사업화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우수 성과가 기대되는 기

업에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오득창)의 직접투자 및 협력 기관의 투자 프로그램, 해외시장 진출 사업까지 후속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창업기업은 물론, 세종시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sjstarton.or.kr/main.db), 케이(K) 창업기업(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역 창업 전담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며, 세부 문의는 센터 ☎ 044-999-102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태선기자

예산군, 민생 6대 분야 연간 계획수립으로 군민 생활 안전성 확보 ‘주력’

사회발전에 따른 위험 요인 사전차단 위한 합동 및 자체단속 병행 추진



예산군은 군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생 6대 분야에 대해 충남도와 연간 합동 기획·교차 단속 계획을 수립해 매월 1회 단속을 실시한다.

또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예

산 사무소, 소비자 교육 중앙회, 교육 체육과, 기족 지원과 등 유관부서와 함께 자체 단속·홍보·단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 6대 분야는 ▲원산지 ▲식품 위생 ▲공중 위생 ▲축산물 위생 ▲청소년 ▲환경 분야 등이며, 현재 10개 부서 13개 분야 29명이 흥성 치청으로부터 특사경 지명을 부여 받아 활동 중이다.

앞으로 군은 분야별 ▲농축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변화하는 생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으로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예산=박제화기자

충남새마을회, 202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및 제21대 임원선임 총회

제21대 회장에 신임 성낙구 회장 선출

충청남도새마을회(회장 이경용)는 지난 20일 충청남도새마을회 정기총회 회의실에서 도·시·군 새마을회 임원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및 제21대 임원선임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주요사업 실적을 보고하고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24년도 기본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문화조

성·탄소중립 실천, 연대 강화·새마을운동의 세계적 확산·새마을 운동 주권역량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4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도 및 시군에서 임원 선임의 해로 다소의 임원진이 교체되는 시기이나 민족 새마을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 간 도회장의 소임을 다하고 종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충남새마을기족들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며, 새롭게 구성될 임원진에게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남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도 ‘도민 참여 숲’

시민·체육단체와 힘 모아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흥에공원 도민 참여 숲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민·체육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각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사회공헌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에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김태희 지사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준우 대전충남생명의숲 대표, 이시화 충청남도 골프협회장과 각각 도민 참여 숲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먼저 도는 대전충남생명의숲과 ‘범도민 기부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흥에공원 명품화를 위한 사업 수행 및 흥보▲도민 참여 숲 조성 참여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활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림·도시환경 개선 공동 기획 등이다.

이어 충청남도 골프협회는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민 참여 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도민 참여 숲 조성 등 추진 활동 협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도민 기부문화 확대 업무 협약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벤트 등) 공동 기획 및 흥보 추진 등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관계망 네트워크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사업 수행 및 기부를 위한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청년 살기 좋은 도시 천안' 87개 사업 660억원 투입



천안 독립기념관, 유관순기념관 안내

미국 중학생들에 독립역사 소개

천안시는 20일 미국 중학교 2개교 학생들이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역사 기념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을 방문한 중학생들은 미국 사우스브루스 아카데미(SBAAM)와 멜로즈(Melrose)에서 한국어 정규과목을 수강 중으로 한인사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천안시는 뉴욕주 한국이민사박물관 김민선 관장으로부터 브롱스 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소식을 듣고 방문을 요청했다. 시는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역사 기념관 방문한 학생들에게 한국의 독립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천안시 홍보물을 전달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미국 사회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신학기 맞아 도서 기프트카드 지원

봉명동 행복기움지원단, 저소득 아동·청소년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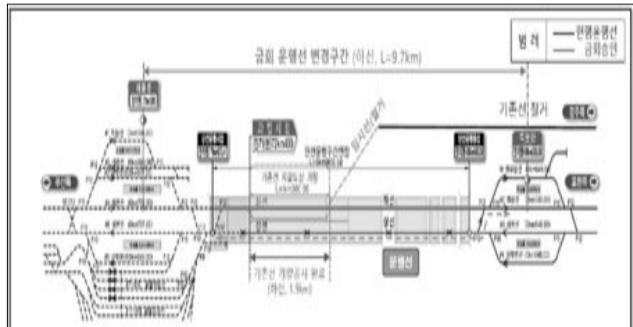
천안시 봉명동 행복기움지원단(단장 심영섭)은 21일 신학기를 맞아 저소득 아동·청소년 10명에게 도서 기프트카드 각 1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봉명동 특화사업인 아동·청소년 교육·문화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서 및 학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봉명동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심영섭 단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용동 봉명동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꿈과 미래를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천안=김정환기자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울산고가 개통

동해선 울산~포항 전 구간 복선전철화 완료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본부장 곽연수)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울산고가 개량공사(1.9km)를 안전하게 완료하고 지난 20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량공사 완료로 열차 복선운행(신설교량-상행선, 울산고가-하행선)이 가능해져 안전 확보는 물론 열차 수송 능력 또한 향상되어 장래 KTX-이음 운행 여건 조성 등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개통한 울산~포항 복선전철 상행 구간 중 하행선에 위치한 울산고가는 시설물 노후화로 2022년 9월부터 18개월 간 궤도개량(중량화), 도상폭 확장, 안전난간 설치 및 신설 등 개량공사가 시행되어 공사기간 중 열차 단선운행에 따른 이동 불편이 발생했다.

곽연수 본부장은 "울산고가 개량공사로 불편을 감수해 주신 지역주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후 철도 시설물을 적극 개선해 철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따라 일자리·주거·복지 등 5개 분야 대응

천안시가 청년정책 5대 분야 87개 사업에 660억 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2024년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천안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 18개 종점과 87개 사업을 추진해 청년의 성장·정착·자립·참여를 함께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분야 25개 사업에 123억 원, 교육 분야 12개 사업에 50억 원, 주거 분야 4개 사업에 107억 원, 복지·문화 분야 30개 사업에 326억 원, 참여·권리

분야 16개 사업에 54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교육사업으로 천안형 청년채용연계 프로그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농 및 출신형 스마트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천안의 아침밥 지원 등 총 37개 사업을 추진해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청년층 위한 공동주택 보급 확대, 대학생 행복기숙사 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 등을 통해 청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장·동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기반시설공사를 3분기에 준공하고 부성지구 행복주택의 미입주 세대에 대한 추가 입주를 통

해 공동주택 보급을 확대한다.

청년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문화 사업을 펼친다. 1인가구 지원, 청년 미음 돌봄,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 대학로 청년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운영, 창작스튜디오 운영 등 총 30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천안형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역 대학과의 상생발전 협약, 농촌마을 만들기 공모전, 청년센터 안서 이음 조성,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 행사, 대학생 자원봉사 응원단 운영 등 총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즐길 수 있는 청년의 날 행사, 청년이 스스

로 제안하고 직접 실행하는 천안형 청년도전 프로젝트를 비롯해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년친화도시 천안 조성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청년의 성장·정착·자립·참여를 함께하기 위한 전략으로, 청년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천안을 만들겠다"며, "청년들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더욱 확대해 청년의 미래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2024년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정기공모



천안시, 3월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천안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는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억 원 미만의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 또는 1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및 온라인 시민투표,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https://www.cheonango.kr/jumin.do>)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실현되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제안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 용곡눈들구역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00호 공급

천안시, 충남도·충남도개발공사·천안도시공사와 업무협약



천안 용곡눈들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500호가 들어선다.

천안시는 21일 충청남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천안도시공사와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충남형 도시리브트케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리브트케더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부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일정 기간 거주 후 구입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토지 매입비를 비롯한 행정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는 청년부부 사이에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 방안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는 사업비 지원과 총괄계획을 맡는다.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천안도시공사는 건설,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관리 운영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도심에 위치한 용곡눈들구역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사이에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며,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지원 성금 4300만 원 기탁

천안시는 지난 20일 대형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성금 4,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 대한직접지사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천안중앙시장 상인 회원, 행복기움지원단 등 기관·단체와 다수 기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는 성금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복구와 피해 상인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사회 재난으로, 이를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심사일반으로 모금하게 됐다"며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형화재로 실의에 빠진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당2동 행복기움지원단

1분기 정기회의 실시

천안시 불당2동 행복기움지원단(단장 조정연)은 21일 불당2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2024년 추진될 신규 사업을 정리하고, 2분기 시작할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불당2동 행복기움지원단은 올 한해 '노인·아동·고위험 1인 청장년' 등 대상자 연령 및 가구 유형 등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장현우 청장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무역장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연 단장은 "올 한해도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4년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지속가능성 실천을 위한 지표모임 등 추진

천안시는 태조산 관광산업 활성화 주체간 협조를 위해 태조산 일원에 공용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차지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용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은 태조산 등으로 개발로 증가한 방문객의 주차 수요를 충족하고 시내버스 회차지 확보로 교통 편의를 높여 점진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돼

왔다.

시는 오는 4월까지 58억 원을 들여 안서동 156~4번지 일원 6,736㎡에 일반차량 102면, 버스 18면 등 총 120면 규모의 주차장과 시내버스 회차지를 신설한다.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태조산 방문객의 주차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편익을 제공해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해용 상임회장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도시, 천안"을 위한 교육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천안시지속협은 민관거버넌스 기구로서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회장인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은 "앞으로 기후나 생태 위기로부터 인전한 천안과 탄소중립 목표

를 달성하는 천안을 만들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지속협은 UNDP 권고하는 '지방의제21' 정신과 원칙에 근거해 2001년 창립한 민간 협력거버넌스 기구로,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천안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실천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110여개사 선정… 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컨설팅, 검증 등 A부터 Z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배정우)은 29일부터 3월 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OECD 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신설됐으며,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 제(EU 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이다.

선정기업은 컨설팅 및 검증 비용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배후세력 구속수사…업무방해·의료법 적용

법무부·행안부 등 의료계 집단행동 고강도 대응 방안 마련



(유)삼각FMC 논산소방서 소속 자녀에게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유)삼각FMC(회장 김봉길)에서 논산소방서 소속 소방 공무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녀장학금 수여식은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2명의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전달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경철 서장은 "지역사회에 인재 양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미래를 선도할 인재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령소방서 상반기 소방사범 기획단속 추진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권)는 2024년 상반기 소방사범 기획단속을 오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대상에 대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예방과 재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사회적 이슈 관련 또는 관계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상(폐차장, 신축공사장)과 주요 5대 취약대상(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18개 대상처를 선정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저장소 외

의 장소에 위험물 보관 ▲폐차 후 잔여 연료유 불법 저장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 취급 ▲소방시설 공사 재하도급 또는 미등록 업체 하도급 여부 등이다.

적발 시 위법 사항의 사안에 따라 경 · 중고 고려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건축법 등 타 관계 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상권 소방서장은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대상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시정조치로 안전한 보령시를 만들 예정이다"라며 "관계자 여러분의 자율적인 안전의식과 협력한 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태선 기자



서산소방서, 직장교육훈련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김상식)가 21일 대회의실에서 소방서 직원 108명을 대상으로 2월 중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은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을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청렴한 소방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서장 주제 비위예방교육 ▲비위근절자정 결의대회 ▲대 폭력예방 · 양성평등 · 갑질 · 음주운전 예방교육 ▲공무원 겸직 금지 등 의무책임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이다.



예산소방서 화재취약대상 일제단속 추진 예정

예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오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안전한 소방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군 내 화재 취약 대상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예산 소방서는 화재 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화재 취약 대상 17개소를 대상으로 선정 예정이며, 소방특별사법경찰 특별 단속팀을 편성 · 운영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배후세력 구속수사…업무방해·의료법 적용

법무부·행안부 등 의료계 집단행동 고강도 대응 방안 마련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강제 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업무방해죄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환자와 가족에는 민사소송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이를 초래한 의료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도 절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업단할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방지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작하고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

동은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각 기관은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이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도 절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업단할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방지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배후 · 교사 세력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상에서 확정될 사안"이라

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협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

신 차장검사는 "형사 입건된 이후 유죄가 인정된다면 하더라도 조기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

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 · 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일부 의료진의 업무 개시명령 송달 회피 움직임에 대해선 "복지부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히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술한 대화로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태선 기자

2023년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전교통공사 공공기관 1위 달성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규양)는 2023년 행정안전부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에서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1일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논·밭 및 정월대보름 행사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순찰 ▲당진 정월대보름 행사장인 '기지시줄다리기 봄풀관' 소방력 전진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 기자

특히, 공사에서 추진한 "환기

충남경찰, 기동순찰대 · 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

심야 취약 시간대 집중배치



심으로 지역맞춤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티시 · 도보다 범죄에 취약한 야간시간대에 집중배치 하여 범죄에 대응한다.

아울러, 형사기동대는 형사기동 1 · 2계 미야법죄 수사계 등 '광역형 형사체계'로 운영되는 한편, 충남에서 강력범죄 등 치안 수요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우범지역이 다수 분포하는 천안권에 기동 2계를 편성해 범죄 분위기 제압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직범죄 · 괴상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도 형사활동을 집중시킨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은 "기동 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및 대응 분야의 역량을 높이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MOU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BPJS Kesehatan)과 21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ICT 기반 청구 시스템 구축 및 자문 제도 개발 등을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공동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진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

23~26일까지 신속 대응 화재안전수칙 안내



당진소방서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대비해 화재예방수칙 안내와 함께 23일부터 26일까지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1년~‘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당진 관내에서 8

집대원 운반을 위한 배낭식 끈(웨빙 스트랩) 사용법 숙달 등 소방대원 자가 탈출 및 동료 구출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박원 대전 시 119특수대응단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 사고에 투입되는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초기 대응능력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서는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인원 992명, 장비 53대를 동원해 ▲논·밭 및 정월대보름 행사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 순찰 ▲당진 정월대보름 행사장인 '기지시줄다리기 봄풀관' 소방력 전진 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릿발 피해는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한 재배지에서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부풀어 올라 땅속의 뿌리가 땅에 걸리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그냥 두면 작물이 말라 죽는다. 수시로 재배지를 살피고, 땅 위로 작물 뿌리가 나와 있으면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물히도록 다시 심어 주어야 한다. 부직포는 주어 비료의 속성을 막아야 한다.

서릿발 피해는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한 재배지에서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부풀어 올라 땅속의 뿌리가 땅에 걸리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그냥 두면 작물이 말라 죽는다. 수시로 재배지를 살피고, 땅 위로 작물 뿌리가 나와 있으면 뿌리 부분이 완전히 물히도록 다시 심어 주어야 한다. 부직포는 주어 비료의 속성을 막아야 한다.

양파에 발생하는 노균병과 마늘 · 양파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은 겨울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수시로 작물을 살펴보고 병 증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고자리파리류와 뿌리등상과 같은 해충은 뿌리의 생장을 저해하므로 2월 하순부터 해충 발생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작물보호제를 살포하거나 토양에 직접 뿌려 방제한다.

김정환 기자

대전119특수대응단, 신속동료구조팀(RIT) 특별훈련

동료소방관 매몰 · 고립 등 사고 발생 시 구출 역량 강화

대전119특수대응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대전 119구조대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신속동료구조팀(RIT)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신속 동료 구조 팀 (Rapid Intervention Team)은 동료 소방관 매몰 · 고립 사고 발생 시 위험에

처한 소방대원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훈련은 ▲열화상카메라 등 구조장비 사용 숙달 ▲라이트리인을 활용한 고립 대원 검색과 퇴출로 확보 ▲이동식 공기공급장치를 이용한 고립 대원 질식 방지 ▲고

집대원 운반을 위한 배낭식 끈(웨빙 스트랩) 사용법 숙달 등 소방대원

원자기 방지하기 않도록 조치하는 등 신속동료구조팀(RIT)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1년~‘23년)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당진 관내에서 8

토양 내 수분관리 · 부직포 걷기 · 병해충 방제 작업 등 필요



홍성군농가센터는 최근 따뜻했던 겨울 날씨로 겨우내 생장이 멈췄던 마늘과 양파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생육재생기가 작년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늘 · 양파 재배농기에 작물 월동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1개월간 평균기온은 1.8°C로 평년(-0.3°C)보다 2.1°C 높았으며 강수량은 54.8mm로 평년(26.5mm)보다 28.3mm 많았다. 평년보다 따뜻해진 기온과 풍부했던 강수로 인해 올해 미늘 · 양파 생

육재생기는 2월 중순 ~ 3월 상순 무렵으로 예상되며 생육재생기에는 서릿발 피해 예방, 토양 내 수분관리, 부직포 걷기,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미늘 · 양파의 잎줄기 유난히 길고 연약하게 웃자란 경우에는 1차 웃기로 양을 평소보다 적게 주거나 생략하여 생리장애 발생을 줄이도록 해야 하며 1차 웃기를 주는 시기는 식물체 뿌리가 양분 ·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저 온도 4°C가 되는 시기에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양파에 발생하는 노균병과 마늘 · 양파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잎마름병, 흑색썩음균핵병은 겨울철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수시로 작물을 살펴보고 병 증상이 발견되면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고자리파리류와 뿌리등상과 같은 해충은 뿌리의 생장을 저해하므로 2월 하순부터 해충 발생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작물보호제를 살포하거나 토양에 직접 뿌려 방제한다.

김정환 기자

예산소방서 화재취약대상 일제단속 추진 예정

“각 당 및 후보에 ‘교육 입법’ 나서달라” 촉구

한국교총,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 발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21일 제22대 총선 교육공약과제를 발표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제·개정 과제를 제시했다.

교총은 “원대한 교육정책도, 학생 미래교육도, 결국 학교와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다”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가 ‘교육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먼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 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부협의·부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교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서학대 신고가 날발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은 이중상 중 조사에 심신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체 무엇이, 어디까지가 정서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등은 면책하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부협의, 부죄 결정을 받은 교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하고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명예훼손 범죄이자 교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범죄 사실이 없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 교총은 “현행 법에서 교원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자 학부모 대신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 민원을 내신고를 요구하면서 학교가 등교 교사를 신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학교장 등 교원은 해

당 사인의 실체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동료 교원을 신고하는 고충과 내적 갈등을 겪어야 하고, 신고당한 교원은 원망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 부협의, 부죄 결정을 받은 교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하고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명예훼손 범죄이자 교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하지만 학부모의 거절, 연계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교교와 늘봄학교의 외진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도 요구했다. 교총은 “자율생활 기부 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이 늘봄학교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분리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 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 활동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교원지위법에는 교권보호위의 기여 학생 조치에 대해 피해 교원이 불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법률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초·중·고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8만676명에 달한다”며 “하지만 학부모의 거절, 연계기관 부족 등의 이유로 2만140명(25%)이 전문기관과 연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교교와 늘봄학교의 외진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도 요구했다. 교총은 “자율생활 기부 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늘봄학교 정책 추진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제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이 늘봄학교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분리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반영한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각 당과 총선 후보에 전달하고 국회 방문, 공약 반영 후보 지지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 활동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연수 실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은 20일 선별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실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필요한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실습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해, 학생, 학부모 면담 조사 시 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강조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3월 초에 위촉식을 실시하고, 수시로 컨설팅이나 연수를 추진하여 처음 시작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청양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숨은 노력들’

청양 정산고등학교와 목면초등학교가 매년 따뜻한 손길을 받고 있다. 인당장학재단(이사장 윤종일)이 매년 이사장의 모교인 두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는 것으로 2023년에는 청양고등학교에 2,000만원, 목면초등학교에 7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당장학재단은 도시화로 인한 이촌현상으로 발생되는 농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양 지역에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15년이 넘는 세월동안 장학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활밀착형체험 중심 안전교실 운영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원장 박필용)이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학생 안전 확보 및 생생한 문화를 조성하고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통한 위기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마실은 이웃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전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밸국제아카데미, 레드스쿨) 2곳을 선정해 이동 차량 및 첨성식 사비를 지원해 직접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학생 안전체험관에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예산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청렴 소통 간담회 실시 예산 교육 지원청(교육장 김종하)은 지난 20일 예산 교육 지원청 유아교육 협의 실에서 방과후 학교 강사 대상으로 청렴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외부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사전 설문을 거쳐 토론 주제를 선정했으며 희망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가 참여하여 그동안 궁금했던 채용절차와 같은 사항들을 듣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범청소년 4명 장학금 300만원 전달

대전서구 학교밖청소년센터, 건강한 미래와 대학생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행한 모범청소년 4명의 건강한 미래와 대학생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A청소년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센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장학금을 통해 꿈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선아 센터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롯데케미칼(주) 종합 기술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4명 배치·운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 ··· 학교의 교육적 역할 집중에 기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전담할 조사관 24명을 선발하여 2024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투입한다.

학생화해중재원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모집 공고를 진행하였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지원자 총 58명 중에 최종 24명을 선발했다. 최종 선발된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상담 및 청소년 전문가 중에서 선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 인력 지원을 위해 전담 조사관들이 학교 사안처리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오

는 28일까지 집합과 실습의 2개 과정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집합 연수는 총 3일 15시간 과정으로 지난 14월과 16일에 진행되었으며, 28일에는 실습 연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는 ▲법률과 제도의 이해 ▲아동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사안조사 방법 등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보고서 작성 요령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의 실무 중심 실습도 이루어진다.

연수를 이수한 전담 조사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 4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

교를 방문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 자체 전담기구와 학교폭력제로 센터에 보고한다.

이후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가 교육적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 이후에도 전담 조사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 조사관은 3월 이후에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신학기 대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금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 종합점검과 연계하여 추진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20일 금산학생체육관에서 어린이통학버스 5대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신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월 14일~23일까지 실시하는 학교 생활안전 및 시설안전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과 연계하여 추진했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합기임 ▲어린이통학버스 구조요건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등의 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새로운 학

기기 시작될 때는 탑승 학생들 및 노선 등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면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 외에도 연중 통학버스 탑승 점검, 상·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점검,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안전 점검과 함께 학교 안전 확보 및 생활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통한 위기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마실은 이웃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안전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밸국제아카데미, 레드스쿨) 2곳을 선정해 이동 차량 및 첨성식 사비를 지원해 직접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학생 안전체험관에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공주시청 꿈안카페와 충남교육청 내 행복카페의 인정적인 운영을 통해 매출이 매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공주시청 꿈안카페는 공주정명학교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장소로 이용되고 졸업생들의 취업으로 연계되어 현재 4명의 졸업생이 희망일자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유양숙 교장은 “지역사회에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공주정명학교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우리 학생들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상범기자



공주정명학교, 학교기업 연매출 3억 달성!

학교기업 ‘비른그루’의 연매출 3억 달성 기념 행사



공주정명학교(교장 유양숙)는 지난 20일, 학교기업 ‘비른그루’의 연매출 3억 달성을 기념해 공주시 월송동 불우이웃에게 공주정명학교 학교기업 ‘비른그루’는 면장갑 생산이 주종목인 직조 가공 사업을 주축으로 비리스타, 산업도자, 생활공

예, 외주용역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른 그루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공주시청 내 위치한 꿈안카페와 충남교육청 내 행복카페의 인정적인 운영을 통해 매출이 매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공주시청 꿈안카페는 공주정명학교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장소로 이용되고 졸업생들의 취업으로 연계되어 현재 4명의 졸업생이 희망일자리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유양숙 교장은 “지역사회에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공주정명학교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우리 학생들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상범기자

■ 대전투데이

www.daejeontoday.com

중기·소상공 '금융 지원 확대' 맞손

道-NH농협은행-충남신보 협약...농협 47억 출연·신보 705억 신용보증 지원

충남도와 NH농협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이 힘을 합쳐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70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마련했다.

도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지사와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백남성 NH농협중앙회 충남제종분부장,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김두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도의 경제

성장과 도민 행복에 이바지하고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47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0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도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보증연계 자금 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으로, 2년간 이자 2.5%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자금은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이번 신용보증 주가 지원이 고를

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특별출연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데, 이는 농협과 충남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오늘은 지난해 12월 약속한 '스마트팜 협약자금' 10억원을 전달받는 날인데, 이를 통해 청년들이 돈이 없

어도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을 한 해도 '든든한 민족은행'으로서 도민에게 항상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석용 은행장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큰 규모의 특별출연을 결정했다"며 "충남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매월 1만5000원 충전 바우처카드 지원

예산군은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흰우유, 멸균유, 가공유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 카드를 지원하는 '우유 바우처(현금카드) 시범 사업'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유 바우처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우유를 매월 1만5000원을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 우유 급식은 학교에서 일괄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우유 바우처 사업은 학생들이 바우처 카드로 편의점과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사업 참여 학생은 관내에 주소를 둔 6세에서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자녀 등 600여명이다.

군은 바우처카드에 매월 1만5000원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9일부터 연중 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하며, 대상자는 3월 1일부터 우유 바우처(현금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 효율 개선, 수혜자 낙인 효과 완화, 유제품 선택권 확대와 함께 복지 공백 최소화 및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해 협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2025년부터 우유 바우처 사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박재희기자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현장

인전점검 위해 96개 전문수행기관 선정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제로' 구현을 위해 96개의 안전점검 전문수행 기관(토목분야 41개, 건축분야 55개)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공단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25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 공사현장의 터널, 교량, 건축물뿐만 아니라 융벽, 사면,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철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 기관을 선정하기 전 '23년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으며, 체계적인 기관관리를 위해 철도공단 전자조달 시스템에 명부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가철도공단 안전본부 김공수 본부장은 "안전본부는 이번 안전점검 전문수행기관으로 선정된 96개 기관들과 함께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철도공단은 76개의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강릉~제진 단선 전철 사업,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32개 철도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했다.

송병배기자

국립한밭대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국립한밭대학교 성과관리(IR)센터는 지난 19일 교내 국제교류관에서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국립한밭대 오용준 총장과 박성숙 성과관리(IR)센터장,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 및 학무위원이 참석했으며, '데이터 기반 대학 성과분석의

중요성'을 주제로 이상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팀장의 특강과 주제별 발표로 이루어졌다.

금번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는 대학발전계획 추진현황을 시작으로 정

보주시 데이터 분석, 전임교원 연구동향,

재정지원사업 추진현황, 장학금 및 취업 현황 등 각종 교육·연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작화했다.

특히 재학생 개인분석을 위한 교과·비교과 정보를 분석하는 표장을 구축함으로써 내실 있는 진로설계 상담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한밭대 박성숙 성과관리(IR)센터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학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대학의 주요성과를 매년 성과자료집으로 발간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립한밭대학교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한밭대학교 성과관리(IR)센터는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이 달성한 정량적 성과를 한데 모은 '국립한밭대학교 2023 성과자료집'도 발간하여 배부했다.

본 자료집에는 대학 소개, 주요 재정지원사업 현황, 대학 기본 현황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연구·사회공헌 성과와 함께 성과관리(IR)센터의 목적 및 주요업무를 담고 있다.

김정환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22대 국회 입법 기대감 낮아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CEO 의견 조사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는 제22대 국회 입법행보에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에 대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높아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

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 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히 정의 활동을 하는 의원'(19.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7.2%

에 불과했다.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32.8%),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20.3%), '산재보험, 에너지비용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11.3%) 등을 꼽았다.

주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의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대 '로컬혁신크리에이터 특성화 분야 글로벌 프로젝트' 진행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지방대학활성화사업팀은 국외로 가는 '로컬혁신크리에이터 특성화 분야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전대에 따르면 '로컬혁신크리에이-

티 특성화 분야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 20명과 인솔 교원 2명 등 총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20일 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과 오사카 지역에서 특성화 분야를 탐방했

다. 학생들은 일본 도쿄에서는 로컬혁신크리에이터 특성화 분야인 ▲공공디자인 인재 양성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인재 양성과 관련된 에너메이션 작품을 감상했다.

이어서 도시재생 긍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2년 3월에 준공된 멀티 플레이스 도시재개발 탈방을 하기 위해 시부야 역세권 하카리에 방문, ▲기획 전시 ▲콘텐츠 체험 ▲경관·마을 만들기 센터 방문 등을 통해서 도시 재생 사례를 경험하는 등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을 진행했다.

대학 관계자는 "일본의 도시 재생과 특성화 분야와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꾸준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정주를 위한 인재 육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아산시 농업인 농산물가공 창업 기반 마련

아산시가 21일부터 '농산물가공 심화교육'을 시행한다.

회망하는 농업인은 심화반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심화교육이 끝난 후에는 품목별 가공 과정 학습을 회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주가 자율교육을 시행하며, 가공교육을 이수한 가공 창업경쟁과 기존 가공 창업자를 대상으로 3월과 11월에 보수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석 과장은 "기초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기본지식을 강화하고 심화교육 이수로 성공적인 창업의 기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산=리량주기자

모범음식점 26개소에 '홍성 특산품' 지원

홍성군, 업소당 광첨김 15kg·광천토굴새우젓 10kg 지원

홍성군은 2024년도 모범음식점에 홍성 대표 특산품인 광천김과 광천토굴새우젓을 업소당 각각 15kg, 10kg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26개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성의 특산물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품을 지원한다.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은 현장 심사, 심의 등 각 절차를 통해 선정되며, 1년마다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광천김과 광천토굴새우젓을 활용하여 홍성군민뿐만 아니라 홍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풍족하고 맛 있는 상차림을 제공하고, 홍성군의 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생산 농·수산물 활용을 독려하고, 지역 특산물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음식점에는 특산품 지원 외에도 상수도 요금 지원, 군 홈페이지 게재

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당진시 콩 활용 대표 메뉴 3종 개발

'더본'과 손잡고 두령콩 수제비 기술 이전 전수 교육

당진시가 지난 20일부터 더본외식산업 개발원과 손잡고 서리태 콩을 활용한 메뉴 개발을 끝내고 본격적인 전수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당진콩 우수 사용 업소로 선정된 음식점 중 5개소가 참여하며 ▲메뉴 설계 및 시식 ▲특화메뉴 실습 교육 ▲현장 1:1 방문 컨설팅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당진시는 당진 우강, 합덕 평야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두령콩 서리태'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으며, '콩 자립형 응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2년간 당진 남부권을 중심으로 11헥타르(ha) 면적에 콩을 재배해 두령콩 직거래 장터 운영, 볶은 두령콩 서리

대상화, 두령콩 찰떡 개발 등 지역 업체와 손잡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메뉴는 더본외식산업개발과 계약을 맺고 당진시 관광객, 당진시 연령별 인구 현황 등을 분석해 만든 메뉴로, 건강에도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당진 두령콩' 고유의 맛을 그대로 표현해 독특한 요리법(세시피)을 완성했다.

동정

도서관 개관식



오성환 당진시장
=22일 오후 2시,
당진시립중앙도
서관 4층에서 '와
글외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개
관식'에 참석

액션그룹 3기 교육



가세로 태안군수
=22일 오후 2시
태안군민거리통
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신활력플
러스 사업 액션 그
룹 3기 교육'에 참석.

정기총회



김돈곤 청양군수
=22일 오후 4시
대치면 광금리 소
재 농부밥상에서
열리는 로컬푸드
협동조합 제9차
정기총회에 참석.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대장정 돌입

당진시, 큰 줄 제작은 3월 13일~14일 이틀간 공개체험행사로 진행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이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보존회장
구은모)와 축제위원회(축제위원장
최홍섭)의 주관으로 오는 26일부터
줄 제작장(송악읍 기지시리 11)에
서 시작된다.

오는 4월 열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쓰일 줄 제작은 내
달 말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잔줄
제작과 중 줄 제작, 큰 줄 제작, 머
릿줄 만들기, 결 줄고 만들기, 결
줄 제작, 쪽줄 제작 순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줄의 규모는 길이 암줄,
수줄 각 100m, 두께 1.8m, 무게 40t
에 달하며, 줄 제작 기간 한 달 동안
연인원 2,000여 명이 줄 제작에 참



여한다.

줄 제작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큰
줄 제작은 오는 3월 13일과 14일

작에 참여하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올해 줄 제작은
내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준비하여 줄다리기의 공동체 정신
을 살려 주민들이 더욱 학심해 정
성을 대해 만들 계획이다."며 "큰
줄 제작은 공개체험행사로 진행하
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 바
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
축제는 4월 11부터 14일까지 송악
읍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
서 개최되며, 전국 유네스코 줄다
리기 한마당, 전국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지역 여성농업인 900명 대상 '특수건강검진' 추진

농식품부 주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공모' 선정

태안군이 관내 여성 농업인을 대
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비 자부담액도 군비로 추가 지
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다 적
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수건강검진
사업비 1억 8천만 원(국비 9900

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인당 2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총 900명으로 올
해부터 2년간 실시되며, 군은 당초
정해진 자부담액(검진비의 10%,
인당 2만 원)도 군비로 전액 부담하
는 방안을 검토 후 추경 편성 등 절
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
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대
상자는 51~70세의 농업경영체 등
록 여성농업인이다.

대상자 900명 중 짹수년도 출생
자가 올해 검진을 받고 내년에는
출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및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항목에 대한 검진 및 상담이
진행된다.

군은 검진 대상자 최종 확정 및
검진 병원 선정을 마무리한 후 오
는 7월부터 본격적인 검진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건강을 선제적
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며 "사업이 치질 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잘 점검하고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아산시 시민들에게 여가와 문화 휴식 공간 제공



온양4동 바르게살기 민·관협력

봄철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아산시 온양4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
회(회장 임유환)는 20일 봄철 산불조심기
간을 맞아 민관이 함께하는 산불 예방 홍
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고 산불 조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했으며, 산불예방홍보 캠페인과 더
불어 주변 공원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했
다.

임유환 회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산불
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산불
예방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석 온양4동장은 "산불이 발생하
면 피해가 많은 만큼, 지역주민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산불 제로화에 함께 앞장
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온양4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는 대청소, 불법현수막 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산=리랑주기자

축산업 육성·정주 여건 개선 지속 추진

당진시, 축산의료 개선 우수 사업장 견학·기축분뇨 관리 방향 모색

당진시는 지난 20일, 오성환 시
장과 관계자들이 친환경 축산업 육
성과 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순성면 농소리 소재의 축산의료처 개
선 우수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지인 대주농장은 과거
폐지 사육시설, 폐수 정화시설, 퇴
비 제조시설 등에서 많은 축산의료처
가 발생해 주민 민원이 빈번했으
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현대

화 사업을 진행해 악취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대주농장은 사육시설 약 6,584
㎡, 사육두수 약 7,000두 규모로, 주
요 현대화 사업으로는 사육시설 밀폐
및 세정식 텁크시설, 액비순환
시스템, 정화처리시스템 등이 있으
며, 이를 통해 악취의 발생과 유출
을 최소화했다.

당진시는 향후 타 시군의 우수

사업장 및 정책 사례도 참고해 악취
없는 축산업 육성 및 시민 정주 여

부 시설은 운영되지 않으며, 봄
부터 벽천 및 바닥분수, 자갈분수
등의 공원시설을 점검 완료해 본격
가동하고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문화공원은 기존의 청
소년 교육문화센터, 온양민속박물
관 등과 연계해 조성됐으며, 4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7년 토지매
입을 시작으로 2023년 연말까지 공
사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문화공원이
시민의 휴식과 여가·문화 공간으
로 꾸며져 시민들에게 여가와 문
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아산=리랑주기자



주요 협력 사항은 청양사랑기부
제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흥
보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이
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직장인 기부
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
택과 담배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
며, 담배품 제공업체의 경쟁력 강
화는 물론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 주민
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
다.

김돈곤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로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10개 관계기관과 청양사랑기부제 협약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0
일, 군내 관계기관 10곳과 청양사
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
결했다.

우/리/동/네



수도계량기함 보온재 연중 공급

태안군, 수요조사 거쳐 보온재 구입·배부

태안군이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계
량기함 보온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 상하수도센터는 연중 계절과 관계없이 보
온재 교체를 회망하는 군민들에게 보온재를 무료로 배부키로 하고
1차로 400개의 보온재 구입을 완료했다.

특히, 노인가구와 교통약자 가구 등 센터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군민의 경우 담당자 및 대행업체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보온
재 설치·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책은 최근 불규칙한 기온변화에 따른 한파로 전국적으로
수도계량기 파손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군은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온재 무상 공급에 나서기로 하고 수도검침원들을
통한 실태 파악 및 각 읍·면별 수요조사를 거쳐 보온재 구입을 진
행했다.

보온재 사용 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은 물론 곰팡이 및 각종 벌
레들의 번식도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각 가정에서 보온재
현 옷이나 이불 등을 사용할 경우 습기가 차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낡은 보온재의 경우 동파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보온재 무상 배부 및 현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
은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536)로 문의하면 되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계량기 보온재 무상 공급 및 교체는 동파
피해 예방 및 청결한 금수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
든 군민이 민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도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3천여 세대를 직접 방문해
상수도 옥내배관을 세척해 주는 '워터닥터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상수도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열려

농업기술 보급 6개 분야 32개 사업 대상자 선정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가 지난 20일, 세미나실에서
농업 관련 기관장과 농업인 단체장 등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농촌지도 주요 업무계획 공유와 6개 분야 32개
사업 52개소(사업비 22억 원)로 이뤄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
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9일까지 자체 누리집과 지역신문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신청자 접수를 완료했다.

또한,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 시에는 농업인단체협의회 등
외부조사위원 12명이 참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신청 농
가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현지 조사 결과와 합산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선정된 사업은 ▲청년 농업인 영농디딤돌 지원 등 미래 역
량 분야 4개 사업 ▲치유 농장 육성 등 농촌자원 분야 6개 사업 ▲
충청남도 육성 벼 브랜드화 기술지원 등 직물환경 분야 9개 사업 ▲
지역 활동화 활동 기반 조성 등 소득작물 분야 7개 사업 ▲농식품 부산물
활용 경산우 품질 고급화 등 특화 기술 분야 4개 사업이다.
남윤우 소장은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조사를 진
행하고 5,000만 원 이상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 확정된 사업
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겠
다."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2023년 '지역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



논산시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열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논산시장, 논산시의회 의원,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학부모 등 10명의 위원과 아동참여위원회 대표 2명의 어린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3년 아동친화사업의 성과와 2024년 신규사업인 어린이주간행사, 아동권리송 전국합장대회 등의 계획을 보고하고, 하반기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위한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백성현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 어린이상상놀이터, 어린이과학체험관 등 아동들이 즐겁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2017년 8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 인권, 안전, 건강,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



부여군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식 확산 · 생활실천 교육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4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연중 운영하여 군민에게 실천적 환경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해당 교육은 충남도 환경교육 강사단과 부여여성 환경교육 손 인형극단 등 환경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해 미술회관·유치원·학교 등 어르신과 어린이·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환경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배출, 물 절약 등 생활 속 환경 보전 실천 사항과 지역별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및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것으로 올해 2월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군청 환경과 830-2293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노인대학,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 13회, 6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생활밀접형 환경교육을 통해 2045 탄소중립 달성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동돌봄 통합 플랫폼' 마련 나서

계룡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열어··· 다양한 의견 청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난 20일 아동돌봄 관련 새로운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돌봄 관련 조례제정 ▲동네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 마련 ▲돌봄시설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등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학부모 영유아 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으로, 돌봄서비스 통합을 통해 보호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경감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계룡시는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존 아동드림 팀을 아동돌봄팀으로 개편하고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계룡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6개 지자체만 우수지역 선정 · 충청권 유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모든 행정력 집중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에 해당하는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여건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도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2023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김연병 등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 2개



분야에서 2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6개 지자체만이 선정된 안전지수 우수지역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전지수 우수지역은 6개 평가 분야 모두에서 1등급 또는 2등급 평가를 받은 지자체만 선정됐으며, 안전지수 우수지역 선정을 통해 계룡시

는 다시 한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게 됐다.

시는 화재, 범죄, 자살, 김연병 등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화재분야에서는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이 향상한 1등급 평가를 받으며 시민 안전에는 한 치의 타협과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시의 노력과 진정

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응우 시장은 "2023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6개 지자체만 선정된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결정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이 하루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5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해에도 ▲ 2023년 집중안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장 ▲ 2023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종남도내 1위 ▲ 자연재해 안전도 평 A등급 ▲ 2023 사회안전지수 살기 좋은 지역 선정 충청권 1위 ▲ 2022 교통안전 지수 전국 최우수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일의 안전도시임을 입증한 바 있다.

계룡=김성구기자

동정

정기총회



박정현 부여군수= 22일 오전 10시 40분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사) 대한노인회 부여군 지회 정기총회에 참석.

위수탁 협약식



김기웅 서천군수= 22일 오전 9시 군청 4층 주민소통실에서 서 열리는 서천특화 시장 화재 복구대응 점검회의에 참석, 오전 10시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참석,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서천사랑장학회 정기총회에 참석,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열리는 서천군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식에 참석.



논산시 '콩 연구회' 창립총회 열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광재배농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콩연구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하고 향후 연구회 활동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논산시 '콩 연구회'는 수입농산물을 대체해 국민의 안정먹거리를 생산하고 고품질 콩 안정생산 기술 확립과 회원들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회원들은 앞으로 연구회원의 확보와 현재 200㏊ 정도인 콩 재배면적을 400㏊ 이상 확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고품질 국산콩 생산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량종자 보급, 적극적인 선진기술 도입 등으로 논산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출된 김남중 연구회장은 "비록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해 선진지 벤치미킹, 재배 기술 교육 등 회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 치매 인식개선 교육 실시

어르신 생활지원사 대상··· 140여명 참여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일 어르신 생활지원사 140여 명을 대상으로 친목별 및 출 치매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어르신 생활지원사와 연계해 이루어진 이날 교육은 ▲ 치매 바로 알기 ▲ 치매예방 수칙 ▲ 치매파트너 교육 및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치매의 원인, 증상과 유형, 조기발견의 중요성, 치매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치매예방 운동법을 널리 알리고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소책자를 어르신들에게 배포해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으로 인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을 조기 발견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연계 등록해 치매 환자 사각지대 빌드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 치매에 대한 전문성 증진과 돌봄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천군 김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나서



서천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 김 산업진흥구역 지정으로 확보한 50억원 예산을 투입해 지역 김 산업

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2개년에 걸쳐

민간부담 9억원을 포함한 총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 안전적 생산기반 조성 ▲ 위생·안전 관리 및 품질 향상 ▲ 수출역량 강화 및 소비 촉진 ▲ 인지도 제고 및 시장 개척이라는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수립해 김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개소 333㏊의 김 양식업권자에게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채취기·자동이송장치·세척(채취기) 등을 지원하고, 26개소의 미분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는 해수 냉각설비·이물질 제거기 등 가공 위해 요소 관리를 위한 설비를 보급하는 등 품질 향상과 온오프라인 홍보로 서천 김의 위상을 높였

군은 앞으로도 ▲ 수산물 복합 공간 조성 ▲ 김 정수시설 물 공급망 구축 ▲ 흥원항 위원장 현대화 사업 등의 후속 사업을 통해 김뿐만 아니라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서천 김 산업의 발전과 수출 강화에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미だ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천 김의 고품질화로 수출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서천 김 2022년 수출실적은 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출액인 190억 5300만원 보다 73.2%로 비약적으로 증가, 충남 최대의 생산지로써 우리나라 김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운영자 모집

오는 28일까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 · 접수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2월 28일까지



민을 대상으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 마을·공동체(운영자) 3개소를 모집한다.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및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가자에게 최장 3~6개월간 주거 및 연수 일정 제공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운영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해당 체험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목을 재배하며 영농기술을 익히고 지역민과 교류하고자 하는 '귀농인 중심 프로그램'과 은퇴

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이해, 마을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 및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례, 마을 지원 활용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찾기가는 연맹기 교육을 통해 마을자원을 발굴해 각 마을의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인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서천군지속가능지역개발은 2024년 일반 농촌개발사업 마을 만들기 분야 자율개발대상 마을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천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창안학교’ 개강

서천군지속가능지역개발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2024년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첫 단계인 창안학교를 개최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창안학교는 참여 마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다.

신청한 마을은 ▲ 서천읍 둔덕1리 ▲ 마서면 역리, 이포리 ▲ 시조면 신흥2리, 봉선리 등 5개로, 지난 6개월 동안은 마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동정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최원철 공주시장=22일 오전 10시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2024년 노인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

재경보령시향우회 정기총회



김동일 보령시장=22일 오후 1시 30분 백범김구기념관(용산구)에서 제12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트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오후 6시 30분 공군호텔(영등포구)에서 재경보령시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완섭 서산시장=22일 오후 1시 30분 고복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고복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위원 위촉식 참석, 오후 4시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업무협약식 참석, 오후 6시 아르텔웨딩홀에서 열리는 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서산지회장 이취임식 참석, 오후 7시 30분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303차 기획공연 '최연우의 MYTICUS' 참석.

탄소중립실현 세미나



박범인 금산군수=22일 오후 2시 금산을 청산회관에서 열리는 탄소중립실현 세미나에 참석.

금산군 올해 위험목제거 생활권 주변으로 확대

금산군은 군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가옥 주변에 한정된 위험목제거 범위를 올해부터 지목과 관계없이 주택, 시설물, 농경지 등 생활권 주변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을 사전 제거하며 가옥 주변 고사목, 위험목, 불량목을 비롯해 뿌리가 약하거나 기지가 울폐화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단순 경관개선 목적 수목제거 및 가치지기,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 수목 제거 신청은 이달 말까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0개소의 위험목 1912본을 제거했다.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호우가 시작되는 6월 이전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위험목 제거를 마치고 6~9월 위험목 긴급 제거를 추진하기 위한 수요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위험목을 미리 제거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행정력 집중

서산시, 지능형 선별관제 전면 전환 및 시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디자인사업으로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



충남 서산시가 시민들의 사고 예방과 일상에서의 불안감 해소를 통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산시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역점 시책으로 ▲지능형 선별관제 전면 전환 ▲시민안전 보험 보장 확대 ▲부춘산 등산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제시했다.

마저,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전체

CCTV에 전면 도입한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기존의 육안 관제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화재나 배화, 쓰레기 등 특정 이벤트를 표출한다.

관제 효율이 40% 이상 향상되고, 사건·사고 발생 시점 확인을 위한 영상검색 시간 단축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인자와 대응이 가능하다.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에 대한 부상치료비 부상등급을 확대(1~5 등급 → 1~14등급)했고,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금액을 상향최대 500만원 → 2,000만원)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 사고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장(최대 2,000만 원)을 추가했다.

서산시 주민등록 전입기간 동안 내국인은 물론 거주지등록기간 동안 외국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등산로 안전사고 예방과 등산로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완화를 위해 부춘산 등산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내용은 ▲LED 보안등, 비상벨, CCTV 등이 포함된 스마트 풀설치(10개소) ▲자연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파크걸(1개소) ▲등산로 범죄 예방을 위한 LED 경관조명(4개소) 등이다.

박노수 자치행정국장은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재난예방 CCTV 확대 설치, 하천 범람 대비 자동 차단시설 설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서산해미읍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세미나

해미읍성 역사·가치 재조명

충남 서산시가 해미읍성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밭굴조사와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모습으로 정비된 해미읍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이왕무 경기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발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된다.

발표는 ▲조선시대 충청도 해안 방어 전략과 충청병영의 위상(유동호 육군군사연구소 연구원) ▲1651년 충청병영의 이설과 호서좌영성으로서의 해미읍성(서태원 목원대 교수) ▲조선후기 해미현감의 재임실태와 특징(유현재 경상국립대 교수) ▲근대 해미읍성 관이의 훼손 과정(전남대 조정규 연구교수)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제11대 건양대 총장을 역임한 이철성 건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민장원 해군사관학교 교수, 구열희 한국중앙연구원 연구원, 권기중 한성대 교수, 박범 광주대 교수가 참여해 진행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 해미읍성의 문헌·학술자료를 집대성하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정비방향과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병영성으로서 해미읍성의 상징성과 위상을 더욱 알리고 앞으로 읍성도시 브랜드 구축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미읍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시 사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활동”

공주시 사곡면(면장 유상열)은 지난 20일, 2024년 사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 협의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2024년 특화사업 추진계획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기구 발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들은 복지수요자들로부터 민족도가 높았던 ▲밀반찬 나눔사업 ▲독거노인 생신상 치러주기 사업 ▲추석명절 음식꾸러미 나눔사업 ▲난방 취약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등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면서 일부를 확인하고 다른 복지 욕구나 위기상황 등이 없는지 살피기도 했다.

유상열 사곡면장은 "사곡면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보령시 2년 연속 선정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보령시는 2023년 천북면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천북면 안전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 12월 대설 상황에서 협의체의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이 빛을 빛낸 바 있다.

이번 공모 사업으로 응천읍에서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간의 연대로 응천읍 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 내 재난 취약점 개선을 위한 위험지역 예찰활동, 안전취약가구 발굴, 호우·대설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읍·면·동 단위의 안전 기능을 강화해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에게 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며느드화장품 및 캐릭터 상품 판매, 보령특산물 전시 및 판매, 글로벌 풋드존 운영, 글로벌 축제관련 박람회 개최, 협찬기업홍보관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며느드화장품이라는 주제로

김태선 기자

제27회 보령머드축제, 관광객 위한 재미와 편의성 다 잡는다

머드엑스포장내 체험존 집중 배치

보령축제관광재단은 제69차 이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9부터 8월 4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제27회 보령머드축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올해는 머드체험존을 통합 운영하며, 체험객의 재미와 편의성에 방점을 두고 축제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지금까지 꾸준히 해외 방문을 추진하며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금산인삼 불모지 진출을 위한 세계화 도전에 나선다.

이달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머드체험 존통합운영 △머드정체성 강화 △선착과 집중 △방문객 서비스 강화 △신규콘텐츠 도입 등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갖고 기획한다.

먼저, 머드엑스포장구(박람회장) 내 체험존을 집중배치한다. 일

가족친화 프로그램 '가화만사(社)성' 등 운영하며 임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

KT&G, 초·중·고 입학 임직원 자녀 축하선물 전달



KT&G(시장 백복인)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 53명에게 CEO의 입학 축하 메시지 카드와 문구 세트, 외식 상품권 등 축하선물을 전달했다.

학교 입학 자녀를 위해 꽃다발, 문구세트, 외식 상품권 등을 준비하고 중·고교 입학 자녀에게는 외식 상품권을 선물했다.

'가화만사(社)성'은 '가정이 화목해야 회

KT&G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프로그램은 연중 축하·응원·돌봄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되며,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가족까지 수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사는 2015년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자동전환되는 '자동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난임 관련 제도적 지원과 보육지원을 통해 저출산 시대에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시퇴근을 위한 'PC pracy운제'와 5년마다 3주간 사용이 가능한 '리프레쉬 휴

가', '직장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G는 가족친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 여성기준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처음 인증받은 이후 2020년, 2023년에 걸쳐 인증을 재획득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가화만사(社)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구성원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복기자

이형일 통계청장, 삼성SDI(천안사업장) 방문 ··· 현장 목소리 경청



위한 통계생산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업제조업동향조사'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 우리나라 광업, 제조업 및 전기·가스업 부문의 생산, 출하 동향과 제조업의 재고, 생산능력, 기동률을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통계이다.

활용분야는 국내 경기 동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및 여

산업 지수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중요 산업통계이다.

전국 약 77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본청 및 지방청···에서 면접 또는 스마트 조사로 매월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매월 말일 전·후 KOSIS 국가통계포털 및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형일 청장은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대상자인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장기간 통계조사에 응답한 노고에 감사하다"며, "역동경제와 기업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기업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충남대-기초과학연구원-충남대병원, 업무협약 체결

충남대학교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충남대학교병원이 신동지구 종이온기속기와 연계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과 IBS 노도영 원장, 충남대병원 이석구 광공부원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1일 오후 2시,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신동지구 종이온기속기 연계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충남대학교-기초과학연구원-충남대학교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이 대내외 연구개발 특구 신동지구 내 위치 한 종이온기속기 '리온(RAON)'과 연계해 전문인력 협동 양성 및 협업 연구 등 상호 협력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종이온기속기 연계 바이오메디컬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종이온기속기 활용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연교수 구성 및 임용 ▲종이온기속기 관련 연구·전문인력 인적 네트워크 교류 ▲종이온기속기 및 바이오메디컬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장비 활용 협력 등에 상호 보조를 맞춰가 된다.

이정복기자



되어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에는 8회에 걸쳐 학교 독서로 담당자 240명이 참여해 독서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 독서로 DLS의 주요기능, 충남교육청통합도서관 주요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익히게 된다.

김정환기자



책과 함께하는 인생,

북스타트 독서운동 시작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올해도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를 주제로 북스타트 독서운동을 시작한다.

세종시립도서관이 주관하고 북스타트코리아가 후원하는 북스타트 독서운동은 관내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책이 든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양육자에게는 독서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종시립도서관은 사업 추진에 앞서 세종시 북스타트에 참여할 희망연령층과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을 조사하고 연령에 맞는 '사서추천도서'를 준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5~2024년생 영유아·유아·초등학생으로, 조사는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립도서관 관정책팀(☎044-301-4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김태선기자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 구간 전기 공급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본부장 김윤양)는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송산 구간(90.01km)의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22일 오후 3시부터 전차선로에 열차운행시험을 위한 전기(25kV)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충청본부에서는 전차선로에 2만5000V 특고압전기 공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김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체·교육청·인근 학교·아파트 단지에 현수막 설치 및 안전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



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재활 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 향상!
예산군 보건소는 재가 생활 상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간재활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2회 3종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보건소 3층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서 진행된다.



당진시, 중대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지난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진시청 및 산하 기관의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팀장)와 실무자(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지도·점검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주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연주회 운영
공주시립합창단이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길증을 해소하고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가는 연주회'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문화 복지 툴로 활용된다.

서산시, '제81회 서산아카데미' 개최



충남 서산시가 '제81회 서산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서산아카데미는 27일 오후 7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방송인 정은표가 'IQ보다 영재력을 키우세요'를 주제로 영재 남매를 키우며 느낀 경험과 비법을 전한다.

방송인 정은표 씨는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등의 작품 활동을 통해 배우로서 이름을 알리고 SBS 예능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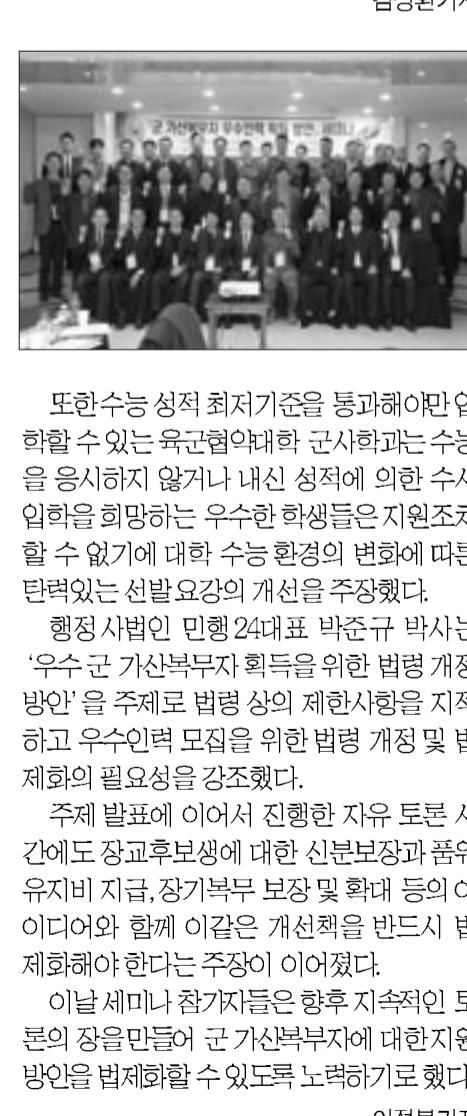
로그램 <스타주니어쇼 봉어빵>에 영재 자녀와 함께 출연해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2022년에는 IQ 167로 상위 1% 영재인 아들 정지웅 군이 서울 대인문대학 인문계열에 합격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서산아카데미에는 서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27일 오후 6시부터 문화회관 1층에서 입장권을 신작순으로 배부한다. 신전 공연으로 'AIJA 앙상블'의 토론풍분과 피아노 합주가 연주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강연으로 자녀 교육에 고민 중인 서산시의 부모들이 정은표 씨의 자녀 교육 비법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자녀와의 생활에 참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군 가산복무자 우수인력 획득 방안> 세미나

학·군현대대학 군사학과 및 건양대 군사과학연구소 주관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군사과학연구소(연구소장 손승호)는 19일 대전에 위치한 계룡스파밸리에서 육군협약 7개 대학 군사학과 운영협의회(실무회)의장 견양대 윤형호 교수와 공동 주관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초기간부 지원을 급격히 확장하는 <군 가산복무자 우수인력 획득 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 및 육군의 인력정책 및 정책연구 담당자와 견양대, 경남대, 대전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청주대 등 7개 육군협약대학 군사학과 교수 등 장교 양성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육군군사학과 운영협의회 의장 대학 견양대 최임수 부총장에 의한 세미나 취지 설명과 함께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의 서면 환영사인 군 가산복무자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각종 예우 등과 관련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은 ▲장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장교 양성 및 운영 Total Solution ▲우수 군 가산복무자 획득을 위한 제도 발전 방안 ▲우수 군 가산복무자 획득을 위한 법 제화를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정복기자

daejeontoday.com

대전투데이

16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대전투데이

거성 노희섭 양양디너콘서트 액티브퀸 2월의 신부 웨딩쇼



2024
2.22
목
오후 7시

장소 : 액티브퀸모델협회 공연장

문의 010-8523-9740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44

VIP 25만원